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 64세로 연장…자문위 대부분 동의

민간자문위 권문일 연구원장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서 밝혀 소득대체율·보험율 인상은 이견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3차 회의에서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이 '연금개혁의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내에서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하지만, 가입연령 상향 등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1일 전해졌다.

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양쪽이 차이가 없는 거 같다"며 "여기 나오는 대책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책을 보면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까지로 확대하되 재원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고, 군복무 크레딧도 복무 전 기간까지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임시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및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포함,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도 있다.

권 원장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율 방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40만원 인상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하는 그룹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재정 소요를 고려해 75세 이상 기초 연금 수급자에게 40만원을 우선 인상하는 방안과 일정 소득 이하 수급자에게 우선 인상하는 방안이 양립하는 상황이라고 권 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에 대해선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강화론'이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소득보장강화론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5%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연장하는 것을 암묵적 재정 목표이고, 가입상한연령 및 정년 연장과 국고 투입 등이 재원 마련 대책이다.

재정안정강화론은 고령화·저성장 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을 목표로 하되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올리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으로 벌충하자는 방안이다.

권 원장은 "두 입장을 두고 절충을 시도했는데 철학이 달라서 좁혀지지 않았다"면서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진전했다. 연금개혁이라는 지상과제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모악산'이냐 '불갑산'이냐

모정환 도의원 "불갑사 지어지며 불갑산으로…원래 지명 회복돼야"

"모악산을 모악산이라 부르지 못하는 함평 군민들의 아픔을 헤아려 모악산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남도의회에서 때아닌 '홍길동' 식 산 이름 논쟁이 불거졌다.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살 수 없다며 모악산을 모악산으로 부를 수 있도록 지명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모정환(더민주·함평) 전남도의원이 두 차례나 도의회 5분 발언에 나서 명칭 변경을 요구하면서다. 모 의원은 두 차례나 도의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올라 '함평·영광 상생의 산 이름 모악산'(2022년 12월), '모악산 Ⅱ'(2023년 1월)라는 발언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모 의원은 "모악산은 함평군 해보면 금계리에 속한 산인데, 불갑사라는 사찰이 지어지면서 불갑산으로 불리고 있다"면서 "근현대사까지 이어져온 모악산이라는 지명을 존중, 원래 지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산도 함평·영광에 걸쳐 있는데다 모악산 정상인 연실봉(516m)은 함평군 해보면 금계리로 함평에 속해 있지만 국토정보지리원이 영광군의 요청으로 지난 2003년 지명이름을 불갑산(352m·영광군 불갑면 모악리)으로 등재해 놓았다는 게 모 의원 주장이다.

영광군은 더 나아가 도립공원 명칭을 불갑산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모악산이라는 명칭이 아예 묻혔다는 게 모 의원 설명이다. '모악산에 불갑사를 세웠다'는 불갑사 홈페이지 소개글, '모악산 불갑사법계'라는 불갑사 일주문 명칭 등을 근거로 모악사가 맞다는 게 모 의원 주장이다.

모 의원은 "함평에서는 산 정상에 모악산임을 알리는 표지석을 세우겠다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영광과 싸우자는 게 아니라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살 수 없으니 산 이름을 모악산으로 부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남도는 주민들의 지명 변경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면 도 지명위원회를 열고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고위력 '현무-5' 미사일 3일 시험발사 진행 전망

군이 재래식 중에서 유례없는 고위력이 될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조만간 이 미사일의 시험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군에 따르면 소위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 계열 미사일 개발이 진행 중이다. 당초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안흥시험장 부근부터 서해 서남방 방향으로 약 300㎞ 이상 거리 해역까지 오는 3~4일에 걸쳐 항행 경보가 발령되면서 이 기간 해당 미사일의 시험발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날 오후 "3일 안흥지역에서의 해상 사격훈련은 없다"고 밝혔다.

은닉성을 요구하는 전략무기 개발 일정이 알려지자 부담을 느껴 시일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조만간 시험발사로 성능을 검증하리라는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군은 미사일의 명칭과 제원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이 미사일은 '현무-5'로 불리며 탄두 중량 8~9t에 추력 75tf(톤포스·75t 중량을 밀어 올리는 힘), 정점 도달 이후 마하 10(음속 10배) 이상의 하강 속도를 낸다고 알려졌다. /연합뉴스

中, 한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중국인은 제외

중국 당국이 1일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예고대로 시행하면서 중국 국적자는 제외하고 한국인 등 외국인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항공 노선 상황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방역 당국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옌지, 난징, 항저우 등으로 들어온 한국발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들에 대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실시했다. '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직항 항공편에 탑승한 사람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하겠다'고 전날 예고한 것을 시행한 것이다.

다만 중국 방역 당국은 승객을 국적별로 구분해 중국 국적 승객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고,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 국적 승객에 대해서만 검사를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지난달 초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 검사를 폐지한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만 특정해 검사하기로 한 것은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상응한 맞대응으로 풀이됐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한국발 입국자 중 자국민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번 조치가 방역 강화 목적이 아닌 한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임을 한층 더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국적 불문하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달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를 요구하고, 입국 후 PCR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연합뉴스

설 명절 후 노로바이러스 장염환자 급증

시 보건환경연구원,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1일 "설 명절 이후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개인위생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설 연휴 후 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관내 12개 의료기관(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와 연계된 4개 병원 포함)에 설사·구토 등 장염으로 내원한 환자 검체 121건의 원인 병원체를 분석한 결과, 환자의 66%(80건)가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장염으로 확인됐다. 이는 설 연휴 전인 1월 초 44%보다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설 명절 직후 검출률(28%)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했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개인위생 관리가 미숙한 영유아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어린이집·유치원 등 집단시설에서 집단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 병원체 중 하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은 2~3일간 지속된 후 호전되지만, 영유아·노인·면역저하자 등에서 탈수 증상만으로도 위험해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정미 수인성질환과장은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 확산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전국, 임야, 삽니다
지분환영, 1000평 이상. 010-9582-7400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전북(전주)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뽀짝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